



동우케미칼

하늘의 상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고 있다. 이 기간에 가장 수고한 자들이 있으니 방송편집팀이다. 이들은 수요일예배와 주일 예배 영상을 준비하느라 비대면 예배 기간 내내 밤늦게까지 일한다. 내가 어느 영상을 성도들에게 보여줄까 고민하는 것에 비례해서 그들이 해야 하는 편집의 양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수고한다, 고생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대신 ‘하늘에 쌓일 상’을 생각하다. 사명에 부도내지 마라’고 당부한다. 나도 위로할 줄 안다. 그러나 사람의 위로보다 그날에 받을 상과 면류관을 일깨워주는 것이 더욱 힘이 될 줄 알기에 그렇다. 학창시절, 졸업식장에서는 졸업장과 함께 꼭 수여되는 상이 있다. 그중 제일 값있게 생각하는 것이 개근상이다. 한 번도 지각이나 결석하지 않는 상. 그만큼 성실, 근면했다는 증거다. 그들이라고 아픈 날이 왜 없었을까, 집안에 애경사가 없었을까만 그들은 자기의 자리를 굳건히 지킨 자들이다.

이생에서 졸업을 하게 되면 졸업장과 함께 받는 상이 있다. 그때도 개근상은 있다.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온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상을 주실 것이다. '네 아이가 아파도, 집안에 일이 있어도, 네 몸이 아파도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았으니 내가 네게 상을 주노라.' 하실 것이다.

두 번째가 학업 우수상이다. 남들보다 성적이 뛰어난 자에게 주는 상이다. 그들은 남들이 잘 때, 남이 놀 때 공부했기에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당연히 그날에도 성적 우수상은 있다. 남들이 자고 놀 때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한 자들에게 성적우수상을 주실 것이다.

목회 초, 심신이 지쳤을 때 당시 초등학교생인 재식이(신혁주 전도사)가 “엄마,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지? 그러면 전 세계 목사님들이 모일 텐데, 하나님이 ‘목사대표 예루살렘교회 이초석, 앞으로!’ 그러시겠지?”라고 했던 말을 지금도 나는 간간히 생각한다. 그날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다. 그러나 그날이 있기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자다. 그날에 받을 상을 생각하고 더욱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자! 반드시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사하신다. 아멘!

속지 말라, 완전범죄는 없다

“자고로 인간의 심리란 자신의 약점이나
과거의 잘못을 알고 있는 사람이 죽길 바
라는 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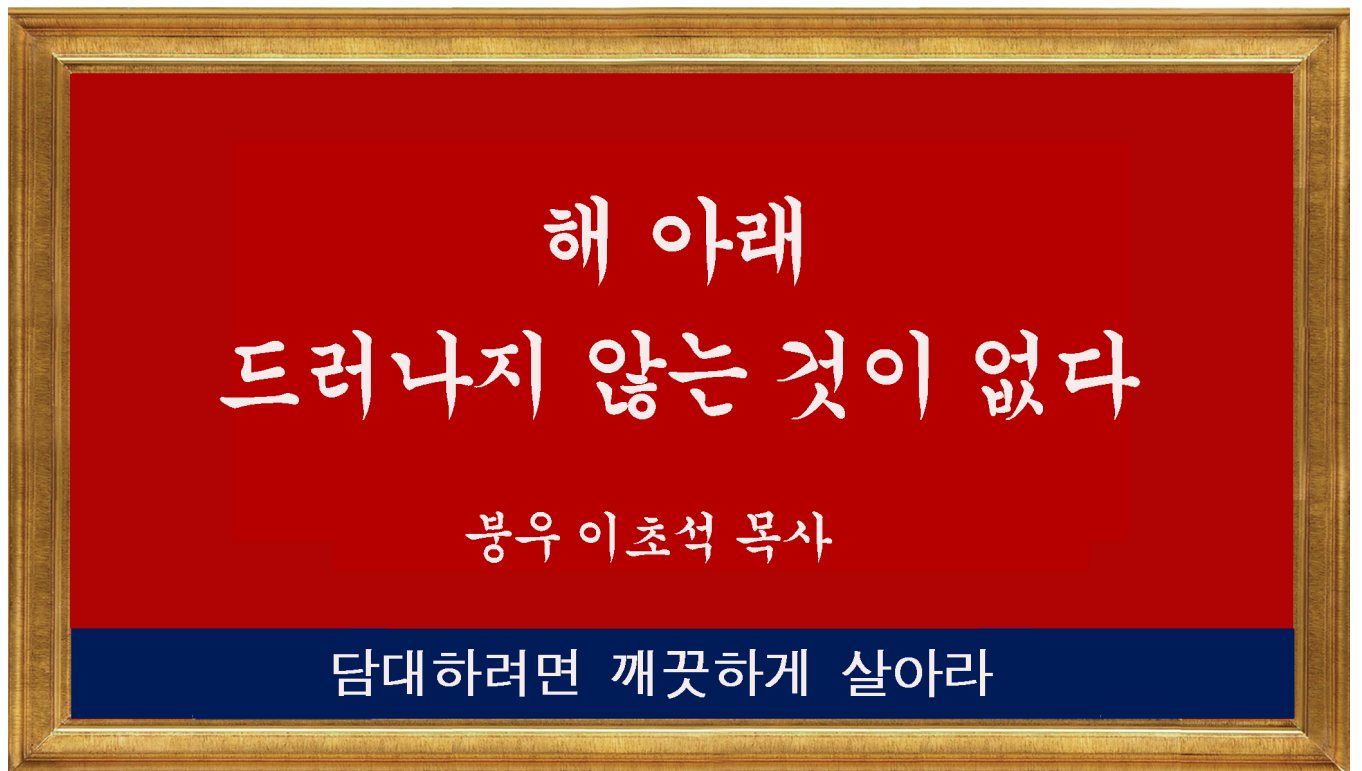
목사님이 지난 수요일예배에서 완전범죄를
 꾀하던 다윗의 사건을 설명하며 인간내면
 의 심리를 진단하신 말씀이다.

“인간 세계의 수많은 범죄들, 특히 살인사건들이 이런 범죄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 마음과 합한 자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신 하나님의 용사 다윗, 그러나 그가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밋세비를 범하고, 완

웹으로 불러들입니다. 부부가 함께하고 나면 자신의 죄가 덮일 것이라 판단한 것이죠. 그런데 충신 우리아는 집에 가질 않습니다. 술까지 먹여가며 회유를 해도 그는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전우들을 생각하며 일신의 안위를 스스로에게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돌이킬 생각은 않고 죄가 장성해지더니 결국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 죽게 합니다. 자신의 불륜을 덮기 위해 그토록 충성스런 신복을 죽게 하다니 이보다 더 극악할 수 있습니까? 우리아가 죽었으니 이제 완전범죄를 완성했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
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
라'(눅12:2~3). 해 아래 드러나지 않을 것
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범죄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 질책하셨습니다.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진 자라도 그가 하나님을 피하여 그릇된 길을 갈 때는 나단 선지자처럼 단호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참 하나님의 종이라 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단의 모든



전범죄를 이루기 위해 우리아를 죽인 사건은 그런 측면에서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요압 장군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를 전선에 내보내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다윗왕은 어느 날밤 초저녁잠에서 깨어난 후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멀리서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동하여 사람을 보내 알아봅니다. 헛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라는 겁니다. 비록 마음이 동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녀가 자신의 총복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안 후에는 마음을 접었어야 다윗다운 처신이었을 것이나 이미 욕심이 잉태한 다윗은 멈추질 못하고 그녀를 취하고 맙니다. 그런데 얼마 후 밋세바로부터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신의 불륜이 드러날까 두려워하여 다윗은 전선에 나가있던 우리아를 예루살

다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지요? 하나님 앞에 그토록 순전했던 다윗조차도 욕심이 잉태하고 죄가 장성하니 그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속지 말아야 합니다. 완전범죄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던 자가 이런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잘 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요.

믿음이 뭔지 압니까? 믿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믿음이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집요한 유혹이 왔지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창39:9)하며 단호히 뿌리치고 욕에 갇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요셉은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종들이 나단 선지자 같기를 바랍니다. 다윗왕은 나단 선지자의 준엄한 지적에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를 즉시 용서하셨습니다, 그 죄의 대가는 평생 빠져리게 치러야 했습니다. 자녀들 간에 서로 죽이고 죽이며, 아들의 반역에 쫓기는 등, 이후로 다윗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죄는 용서 받되 그 죄의 대가는 무섭게 치러야함을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사 자업자득(自業自得)입니다. 무엇이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만고의 진리입니다.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뵈는다(마 5:8) 하지 않았습니까? 큰 자가 되기 전에 먼저 깨כות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진행됩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창20:1~11)

죽음 후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9:27).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일까요? 이 말씀을 깨닫고 사후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반대로 가장 어리석은 자는 이 말씀을 알고도 ‘설마~’ 하면서 사후를 대비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존체입니다.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나이 들면 다 죽잖아요?” 맞습니다. 자고이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왕도 죽고, 영웅도 죽고, 한 시대를 뒤엎은 목사도 죽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다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것이 끝이라면 인생에 전력해야겠지요.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신나게 놀아보겠지요. 그러나 아닙니다. 수한이 차면 옷을 벗듯 육신을 벗는 것일 뿐,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사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사후를 준비하는 자다

“죽어봐야 알지, 그걸 어찌 믿나?” 하는 분들, 그러나 ‘진짜 있구나.’ 할 때는 이미, 그것도 너무 늦습니다. 여러분, 동해 건너에 일본이 있는지 누가 알았습니까? 태평양을 건너면 미국이 있다고 누가 믿었습니까? 그러나 있습니다. 계란 속의 병아리에게 계란 껍데기를 깨고 나오면 다른 세상이 있다고 말한들 어떤 병아리가 믿겠습니까? 올챙이가 개구리가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번데기가 나방이 되고, 구더기가 파리가 되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기한이 차니까 병아리가 나오고, 개구리가 되고, 나방이 되고, 파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기한이 차면 죽을 것이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세상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믿는 자들만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부활을 얻느냐가 다를 뿐이지 믿지 않는 자도 동일하게 부활합니다.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보면 압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단12:2). 부활 후에 ‘영생을 얻는 자’가 있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죽음 다음의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사는 곳이 완전히 다릅니다. 심판을 받은 후 살 장소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이요?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가 심판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5:24).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요? ‘비자 없으면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 이것이 미국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

리요 생명이니 나

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10:9~10).

여러분, 요즘 ‘백세시대’라고 합니다. 길어야 백 세 사는 세상에도 잘살아보겠다고 돈 벌고 저축하고 난리를 칩니다. 노후를 대비해서 보험도 들지요. 그렇다면 영원, 영원히 사는 세상은 더욱 대비하고 준비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천국 못 가면 말고.’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입니다. 뜨거운 사우나에서 두세 시간만 밖에서 문을 잠가놓고 있어 볼까요? 숨이 막혀

죽겠다고 난리를 칠 것입니다. 지옥이 그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음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는 안 믿고 불쌍한 이웃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다 죽은 어느 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다”(눅16:24). 물 한 바가지도 아니고,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할 정도로 지옥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니 두 눈을 가



총회장 이초석 목사

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 람마다 불로써 조금 치듯함을 받으리라”(막9:47~49)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면 세상으로 향하는 네 눈을 빼고, 세상 것을 움켜쥔 네 손을 찢어버리고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추어탕 끓일 때 미꾸라지에 소금을 치면 난리가 나지요? 그걸 막 문지르고, 물을 부었다가 다시 소금을 치고 막 문지르고 합니다. 그리고 불에 올려놓는데, 미꾸라지는 죽어버리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절대 지옥에서 안 죽습니다. 그러니 그게 계속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습니까? 또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지옥을 무저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바닥이 없는 깊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물에 빠졌을 때, 높이 왜 무섭습니까? 바닥이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통이 있는 곳,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제가 지금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거나 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피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면 생명나무가 있고, 어둠이 없고, 죄가 없고, 병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지옥문은 닫히고 천국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안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많아서 천국에 못 간다’고 하는데요, 자고로 목욕탕은 때가 많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비누로 닦아내면 몇 십 년 묵은 때도 다 벗겨져서 깨끗한 새사람이 됩니다.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법, 죄인이기에 더욱 예수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당신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명절 때 비행기 표나 기차표나 버스표를 미리 예매해둔 사람은 제시간에 터미널이나 공항에 가면 고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사지.’ 하는 사람은 티켓이 없어 고향에 못 갑니다. 천국행 티켓도 예매해야 합니다. 그 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중에 믿지.’ 하지 말고 지금 예수를 믿어 예매하십시오.

가장 어리석은 자는 사후를 준비하지 않는 자다

그리고 먼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바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소식을 땅 끝까지 전하라고 하신 것이 예수의 유언이요,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누가 알고 믿겠습니까? 제가 세계를 150바퀴 돌면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는 것을 보고 그분이 살아계심과 그분이 계신 천국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도 해야 합니다. 사명에 부도난 자는 분명히 주님 앞에 섰을 때 피 값을 물음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 교계가 잠들어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위드 코로나’가 선언되면 우리는 바로 올림픽공원 제1체육관에서 집회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여 지옥을 향해 가는 자들을 막아야 합니다. 소경이 벼랑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자동차가 후진하는데 뒤에 아이가 있다면 막아내고 건져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합심으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매년 성경 6독(讀)하는 장로

코로나 전에 어느 남성 구역 예배에 갔더니 집주인이신 안수집사께서 겸연쩍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목사님, 죄송합니다. 올해는 좀 바빠서 성경을 세 번 밖에 못 읽었습니다.” 하신다. 나는 깜짝 놀랐다. 평신도가 성경을 일 년에 세 번밖에 못 읽었다고 죄송하다 하다니. 혹시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표현하셨나 하고 “죄송하냐요? 평신도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왜 죄송해요? 목사인 저보다도 많이 읽으시는데요. 아주 훌륭해요.” 했더니 슬쩍 조장을 쳐다보면서 고개를 떨군다. 뭘 일인가 했더니 그 구역 조장인 장로께서 매년 연초가 되면 성경을 일 년에 4번 이상 읽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러지 못해 조장한테 미안하니까 나한테 슬쩍 구원 요청을 하는 듯했다.

몇 주 전에 그 조장 장로와 그 구역 식구 심방을 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그 장로가 나를 또 놀라게 했다. 정년퇴임 할 무렵 장차 무엇을 할까 하다가 건축현장에 나가서 타일 붙이는 기술을 배웠단다. 어려운 인턴 과정을 거쳐 지금은 대접받고 인정받는 기술자가 되었다. 맛난 식사를 대접하면서 하시는 말이 “목사님, 기술 하나 익혀 놓으니 노후에 물질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남은 인생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하면서 자기는 매년 성경을 6독(讀) 한단다. 고된 현장 일을 하면서 올해도 변함없이 읽고 있단다. 그

말을 듣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다니.... 우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주님도 기쁨으로 들으셨겠지.

정말 멋진 장로, 조장으로 25년 이상 변함없이 충성하는 장로, 크게 잘나 보지도 않는 장로, 주님이 귀히 여기실 것을 생각하며 돌아오는 길에 나를 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했고, 참으로 주님께 감사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탐독하고 그대로 살아내고 싶어 하는 소망을 가진 아름다운 인생, 참으로 멋지다, 아름답다. 은혜롭다.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 사랑하는 가이오가 하나님 말씀에 흠뻑 젖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편지를 보낸 마음이 무엇인지 나도 조금은 알 것 같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요삼 1:2~4).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시119:105~106).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시119:165). 아멘!

이시대 목사

:: 성경에세이 ::

입에 침이 마르도록!

여보게!

우리 나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주로 뭘 사랑하는지 아는가? 손주 자랑이야. 우리 장로들도 핸드폰에 사진을 저장해놓고 틈만 나면 내밀며 ‘이 녀석이 말입니다’ 하며 손주 자랑에 여념이 없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그러겠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어떤 때는 침을 튀겨가면서 자랑한다는 것은 현재 그것을 제일 사랑한다는 뜻이고, 머릿속에 그것으로 가득 찼다는 말이지.

미국 스탠다드 석유회사에 존 아치볼드라는 직원이 있었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스탠다드 석유로 가득했지. 출장을 가서 숙박부에 서명 대신에 ‘한 통 4달러, 스탠다드 석유’라고 쓸 정도였으니 오죽했겠나. 이 이야기가 회장인 록펠러 귀에 들어갔고, 록펠러는 애사심에 감탄하여 자기의 대를 이어 세계 최대의 석유회사를 맡겼다네.

여보게!

나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는 것이 있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네. 나는 오직 ‘백문백답(百問百答)’이 예수, 천문천답(千問千答)이 예수야. 내가 그렇게 예수

를 자랑했더니 아치볼드를 록펠러가 높였듯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서 세계를 복음화하게 하셨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마10:32~33)는 말씀이 있네. 시인한다는 것이 바로 자랑하는 거야. 누구 앞에서 ‘제가 이룬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시인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제 자랑을 아주 많이 하는 어느 집사가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복 받을 사람이구나. 당연히 복을 줘야지.”라고 하시지 않겠나.

누구도 자신이 질투심이 많다고 말하지 않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네(출20:5). 부모든, 자식이든, 돈이든 명예든 나보다 더 사랑하고, 나보다 더 자랑하는 것에 질투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자랑은 꼭 주 안에서만 해야 한다네(고후10:17). 자네는 요즘 무엇을 자랑하고 있나?

봉우

생각이 문제다

비가 와서 못한다
천막 치고 해보자!
추워서 못하겠다.
불 피우고 해보자!
어두워 못하겠다
불 밝히고 해보자!
돈 없어 못하겠다
대출받아 해보자!
힘들어 못하겠다
힘 모아서 해보자!
시간 없어 못하겠다
시간 만들어 해보자!

핑계와 변명이 통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라!
주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을 뿐이다
어둠 속에서 이를 갈며 울지 말고
생각을 바꾸면 주님도 박수를 보내신다
게으름의 정의는 무책임이다
네 인생 책임질 자는 너뿐인 걸 잊지 마라!

2021. 10. 4
봉우 이초석 목사

:: 내가 매일 기쁘게 ::

자녀와의 약속

지난 추석 연휴에 가족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저는 출발하기 전부터 부모님과 함께 가고 싶었던 카페가 있었습니다. 현지에서만 한정 판매하는 케이크와 음료를 부모님께 사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출발 전에는 가신다고 하시더니 2박 3일 내내 카페를 가자고 해도 부모님께서는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 다. 결국 저는 마음이 크게 상했고, 그제야 뒤늦게 시내 한복판의 카페로 들어섰습니 다. 그곳에는 제가 찾던 케이크와 음료가 없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한 시간은 좋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내내 서운함이 남았습니다.

며칠 뒤, 어린 딸아이를 키우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는 포레의 다른 아이들보다 생활 태도가 월등히 뛰어났습니 다. 제가 놀랐던 부분은 그 아이의 식사 예절이었습니다. 긴 식사 시간 내내 자리를 뜨지 않고, 핸드폰의 도움 없이 암전히 앉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분량을 먹는 아이의 모습은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친구에게 남다른 아이의 생활 습관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친구는 아이가 아

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와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켰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나중에 ○○하자.’ 등의 약속을 꼭 지켰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이 약속을 다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끔 자신이 했던 말을 깜박하면 아이는 엄마가 약속을 지켜줬으면 한다며 자신은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친구는 아이와 나는 약속들은 무조건 지키고, 그러다 보니 아이도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식사 예절이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훈육이 아이와 부모 간에 서로 지켜야 할 약속이라는 생각은 정말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느꼈습니다.

친구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이 상하는 것처럼, 부모도 아이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면 아이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득,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골3:21)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모습은 자녀에게 부모님이 주는 최고의 본보기이자 선물입니다.

전훈지 집사

무명의 예배자들에게

얼마 전, 필리핀의 한 빈민촌에서 어린아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영상을 봤습니
다. 예배당이 없어 공터에 천막 하나 쳤을 뿐
이었지만, 많은 아이들이 눈물로 찬양하며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요. 간증하
는 시간이 되어 8살쯤 되는 한 아이가 나
와 마이크를 잡더니 “오늘은 제 생일이지
만 집에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
지만, 제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
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곤, 하
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다른 아이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엄마
가 교회에 가지 말라며 던지는 칼을 피하
고 겨우 교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후 헌금시간이 되었습니다. 빈민촌이다
보니, 예배 때 걷힌 헌금은 거의 없었고, 그
가운데는 돈이 아닌 한 아이의 작은 편지
도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가
난해 드릴 돈이 없어서 정말 죄송해요. 그
래도 저를 만나주시고, 교회 나오게 해주
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 아이들의 예배를 본 저는 뭉클한 마음
과 함께 성경 구절들이 떠올랐습니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
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4:24),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
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고
후6:10). 하나님은 분명 이 허름한 빈민촌
에 이름 모를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
쁘게 흠향하시고 감동하셨을 거라 확신했
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축복이 넘칠 것이며, 우리
역시 어떠한 상황이든 이렇게 진심을 다
해 예배해야 한다는 다짐이 밀려들었지요.
성경을 묵상하노라면, 이름과 행적이 세세
히 기록된 유명한 인물들 외에도, 비록 숫
자로 표기되며 사람들에게 이름조차 알려
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무명의 예배자들이 참 많습
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한 아합왕의 시대에 엘리
야 뒤에 숨겨진 무명의 7천 명 용사들이 그

러했습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던 120명 역시 그들의 예배
와 선교사역이 디딤돌 되어, 결국 머나먼
이 땅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지요. 세상의
인정과 환경을 뛰어넘어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담아낸 참으로
귀한 성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메마른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짓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한 목재는 불품없
는 잇딤나무(조각목)였다고 하지요. 거친
사막에서도 깊이깊이 뿌리를 내려 지하수
를 먹고 자라서, 결국에는 성막, 즉 하나
님의 성전에 재료가 되니 하나님의 섭리
는 참으로 오묘합니다. 겉으로 별 볼 일 없
는 잇딤나무가 땅속에서는 깊이 뿌리 내
려, 결국에는 성전과 법제가 되듯 코로나
시대, 비대면 예배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
서도 더 깊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
를 세워가는 이 시대 무명의 예배자들, 교
역자들, 선교사님들에게 진심 어린 박수와
축복을 보냅니다! **하인명 집사**

코로나19사태의 종식을 위해 다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Good News

불교에서 주장하는 불변의 교리 중에 ‘인과
응보(因果應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
다.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주어지며,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반
드시 좋지 못한 일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인과응보의 사슬은 불교를 창시
한 석가모니 자신도 해결해줄 수 없다고 고
백했습니다. 그러나 인과응보는 도덕적인
가르침이지 구원의 진리는 결코 아닙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철학적
인 말을 남긴 유명한 스님 한분이 계셨습니
다. 살아생전에 사람들을 만나면 죄를 지을
까봐 암자에 철조망을 둘러치고, 10년 동
안 눕지도 않고 앉아서 잠을 자고, 밥을 먹
지 않고 생쌀과 술 이파리를 씹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에게도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는
데 그를 둘러싼 제자들 중에 한사람이 물었
다고 합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
내가 지은 죄가 수미산보다 높으니... 나의
영혼은 깊은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는구나.”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천하 인간들에게 예수 외에 구원받을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가 길
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
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
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인간들이
만든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
는 길은 끝진 길이요, 막힌 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복락의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서 약속하셨습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전립선 비대증

K씨는 평소 소변 줄기가 약한데다 간혹 끊
어지기도 하고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오
는 증상이 수년간 있었으나 늙으면 다 그
런 것이라는 생각에 그냥 지내왔다. 그러
자 점점 증상이 심해졌고 가까운 병원의
비뇨기과를 찾아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전
립선비대증 진단을 받았다.
비뇨기는 삶의 질을 좌우하는 신체기관
중 하나다. 우리 몸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관으로, 문제가 생기면 여간 귀찮고 고
통스러운 게 아니다. 밤마다 소변 때문에
수시로 잠에서 깨고, 너무 자주 화장실을
찾게 되거나 소변을 참기 힘들어질 수 있
다. 이중 특히 전립선비대증은 중·장년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다.
전립선은 방광 아래에 위치하며 소변이
배출되는 요도를 감싸고 있다. 무게는
15~20g, 길이는 4cm, 폭은 2cm 정도로

‘호두’만한 크기다. 배뇨와 생식기능에 관
여하며, 전립선에서 분비되는 액은 정자
의 영양분이 되고 요도의 감염을 막는 역
할을 한다. 이 같은 전립선의 크기가 커지
면서 요도를 압박하면 소변 길이 짧아지
게 되는데 이는 결국 배뇨장애를 일으킨
다. 이것이 바로 ‘전립선비대증’이다. 정확
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다른
만성질환과 마찬가지로 노화 등 여러 가
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전립선비대증 증상은 소변 시 느끼는 배
뇨증상과 소변이 방광에 찰 때 느끼는 저
장증상으로 구분한다. 배뇨증상은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약뇨’, 배뇨 시작까지 시
간이 오래 걸리는 ‘요주저’, 소변을 본 후에
도 시원하지 않은 ‘잔뇨감’ 등이 있다. 저장
증상은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고 느끼는

‘빈뇨’, 야간에 소변을 보기 위해 한 번 이
상 잠에서 깨는 ‘야간뇨’, 갑자기 소변이 마
려우면서 참기 어려운 ‘요절박’ 등이 있다.
전립선비대증의 치료는 초기에는 배뇨습
관 개선 등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치료가
가능하다. 약물치료는 전립선 근육의 긴
장을 완화시켜 소변 배출을 돕는 ‘알파차
단제’와 호르몬 분비를 줄여 전립선비대
를 막는 ‘호르몬억제제’가 가장 많이 사용
된다.
전립선 비대증은 응급 치료가 필요한 질
환은 아니다. 하지만 양성 전립선 비대증
으로 효과적이지 않은 배뇨가 장기간 지
속되면, 방광 기능 저하, 상부 요로 손상,
신장 기능 저하, 감염, 방광 결석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방치하지 말
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자.
Dr. 조희경 집사

하나님의 유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하나님
께 버림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에게 말씀하신다. 이새의 아들 중에 다시
왕을 세웠으니 가보라고. 첫 번째로 엘리
압을 보며 사무엘이 생각한다. ‘아, 이 사
람이구나!’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사람은 외모를 보나
당신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신다. 외
모에 자신감이 없는 자들이 많은 위로를
받는 대목이다. 그렇다, 외모가 뛰어난진
않아도, 우리에게 믿음의 있다!
그렇게 일곱 아들을 보았으나 하나님은
모두 아니라고 하신다. 아직 남은 아들이
한 명 있다고.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데
려오니, 하나님은 바로 이 자라고 하시며
기름을 부으라 하신다. 그런데 다윗도 빛
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
다고 하신다. 요즘 말로 하면 아이돌 수
준으로 준수하게 잘생긴 소년이라는 말
이다. ‘뭐지...? 용모가 빼어난 엘리압은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셨으면, 다윗은 그
래도 좀 평범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데 심지어 처음 왕으로 선택받았던 사울
도 이스라엘 남자 중에 사울보다 더 준
수한 사람이 없었고, 키까지 매우 컸다
고 하신다. ‘아, 이런...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은 외모도 준수하단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그렇다고 중
심만 보시는 건 아니라는 말인가? 오 그
래, 요셉도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하지 않았던가?’ 좀 전에 받았던 위로가
이번에는 충격으로 다가온다.
잠깐, 미소를 짓는다. 그러다 깨닫는다.
이 말씀은 사람을 분별함에 있어서는 외
모에 현혹되지 말라는 뜻이었음을. 아무
리 빼어난 용모를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
님께 버림받은 자일 수 있다는 것을. 선
택받았을 때의 사울과 버림받았을 때의
사울의 용모와 키는 동일했음을. 그 사람
의 중심은 눈과 말과 행동을 통해 흘러나
옴을. 그래서 결코 외형적인 단정함을 무
시해서도 안 됨을. 하나님은 나의 중심
을, 사람은 나의 외모를 보기에.

박찬영 집사

